

1995년도 정보통신정책방향

정 홍 식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차 례 □

- I. 새로운 질서의 형성
- II. 정보통신정책의 기본 틀

- III. 주요정책내용
- IV. 맺음말

I. 새로운 질서의 형성

세계는 WTO체제 출범과 함께 생산은 물론, 유통과 판매등 모든 부문에서 국경의 제약없이 사람과 자본, 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3의 물결”을 통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경제구조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급변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현상이 일반화 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과 소비행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큰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세계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세계화 추진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초에 세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의 주무부처로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종합적이고 일원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원활한 정보의 전달과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장래의 주력산업이 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II. 정보통신정책의 기본 틀

정보통신부 발족은 우리의 정보통신정책에도 일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부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책의 기본 틀을 가지고 정보통신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수요측면에서의 정보화촉진정책과 공급측면에서의 정보통신 산업육성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토양이 될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공급능력 제고와 기술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구현에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둘째, 정보통신망과 H/W, S/W, DB등이 상호연계된 시스템적인 특성을 살리고 컴퓨터·통신·방송간 상호융합화에 따른 멀티미디어의 출현에 대응하는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종래의 서비스(3차산업) 위주정책에서 제조업(2차산업)도 포함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셋째,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제약없이 정보통신분야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

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관련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며,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건의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Ⅲ. 주요정책내용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금년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과 대덕간에 선도시험망을 구축하여 대학·연구소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과 서비스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전국 12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국가통신망을 건설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전산망등을 시범 수용하는 한편, 대량의 통신수요지역부터 광케이블을 포설하여 초고속공중통신망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덕연구단지를 정보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이용능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초고속이용기술개발등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모방식 등을 통하여 학생·중소기업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초고속통신망 설비투자에 있어서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2.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공공부문과 산업부문, 지역정보화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정보화는 기존에 추진중인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토지리정보망·의료정보망등 새로운분야의 정보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전산화와 관련한 국가예산의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보화를 가속화하기위해 물류정보망·운송정보망의 구축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정보통신설비 구매지원과 국책연구소의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체계적인 정보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사회 정보화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 농어촌지역의

원격진료서비스 및 무료 컴퓨터교육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활성화 해나가고, 지역단위 정보센터의 확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방침입니다.

3.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미래 핵심산업인 멀티미디어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위하여 초고속통신망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수요를 개발해나가고 주문형 비디오(VOD), 유선방송 등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해나감에 멀티미디어산업 전담추진체제를 구축하여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식집약적인 소프트웨어(S/W)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외주구매를 적극유도하고, 소프트웨어의 재값 받기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유통전문업체의 창업지원과 불법유통 S/W에 대한 단속강화 정책 및 세계유수의 연구소·기업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향후3~5년간 연평균 1,000 억원 규모의 S/W 개발자금을 지원할계획입니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전산망조정위의 공동접속 권고기능을 활성화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와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베이스관리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등 세계 일류상품화가 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산주전산기 구매자금 지원등 내수시장의 확대시책을 추진하며, 전자교환기 수출과 해외 현지합작공장 설립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정보통신사업의 경쟁촉진

정보통신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적극 유입하기 위하여 신규 시외전화사업자를 허가하고,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도 기존 방침대로 하나의 사업자를 우선 허가하되, 점진적으로 경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주식중 14%를 매각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철폐하여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기능에 의해 정보통신 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며, 경쟁의 확대에 부합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5. 전파·방송 신매체의 보급확대

전파를 이용한 새로운 정보매체의 이용기반의 구축을 위해 금년 6월에 발사에정인 무궁화위성 사업의 발사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계기로 첨단 통신·방송체제를 구축하여 디지털위성방송 등 다양한 고도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며, 아·태지역 위성통신협의회 주도적인 운영 등 위성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 하고, 동북아 한민족 동일문화권 형성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송망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종합유선방송을 지역정보화의 기간미디어로 육성함과 아울러 통신·방송의 융합 등 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관련기술의 개발을 위해 영상과 방송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 할 계획입니다.

6. 정보통신산업기반 강화

올해에는 연구개발투자를 9,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컴퓨터와 무선통신·방송분야의 핵심기술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되, 기업 스스로가 생존력 확보차원에서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방향을 전환하여 정부는 기초·기반기술 등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를 연구토록 하며, 아울러 국가의 모든 연구개발 능력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인력양성부문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창의적으로 신축성있는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실한 정

보통신산업 구조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지원

우리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세계정보망의 동북아거점화를 목표로 아·태지역 정보통신기반(APII)구축을 주도해 나가고, APII협력센터의 설립과 서울유치를 추진하여 정보유통의 세계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과정부간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산업진출에 필요한 자금(EDCF)지원을 확대하며, WTO기본통신 다자간협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본통신협상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앞으로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한 시장개방 전략을 수립토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Ⅳ. 맺음말

앞으로 정보통신부에서는 그간 여러부처에서 추진되어온 관련정책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되,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주된 추진력으로 하는 정책체제로 바뀌 나갈 생각입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취지를 감안하여 역량을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가 세계를 무대로 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체기술개발 능력과 효율적 경영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정보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초고속선도시험망의 활발한 활용등을 통해 정보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정보화의 첨병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고 업계와 정부간을 잇는 가교적 위치에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 홍 식

- 1945년 8월 29일생
- 1971년 5월 : 행정고등고시(10회)
- 1971년 11월 : 국무총리 기획조정실(행정사무관)
- 1972년 9월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77년 9월 : 영국 Bradford대 연수(서기관)
- 1979년 4월 : 대통령비서실(전자·통신·정보산업담당)
- 1986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졸업(경제학 석사)
- 1987년 11월 : 대통령비서실(전자·통신·정보산업담당, 부이사관)
- 1989년 6월 : 체신부(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1990년 8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 1991년 1월 : 체신부 정보통신국장
- 1993년 1월 : 국방대학원 파견
- 1994년 1월 : 체신부전산관리소장
- 1995년 1월(현재)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겸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장